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독일, 은행권 대마불사 최소화 추진

□ 독일의 연방금융시장안정기구(FMSA*: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Authority)는 신규 은행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금융위기 재발 시 은행의 대마불사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힘.

- 독일은 지난 11월 ①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700억유로(920억달러)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마련, ② 자금 조달 방안으로 은행세 징수, ③ 파산 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하는 신규 은행법을 통과시킴.
- 신규 은행법은 국민들의 조세에 기반하는 공적자금 투입이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은 은행들로부터 직접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였고 FSMA에 은행세 징수와 구조조정기금 관리를 부여함.
- FSMA에 따르면 향후 금융위기 재발 시 독일 거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최소화되며 파산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.
 - 그간 파산이 예상되던 거대 유럽 은행들은 경제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고 회생되는 절차를 밟아 왔으나, 향후 독일의 거대 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들은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축소됨.
 - 독일 연방금융시장안정기구의 위원장인 Hannes Rehm은 '대마불사(too-big-to-fail)'의 이유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은행을 구제하게 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.

* 2008년 10월 17일에 제정된 금융시장안정화법(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Act)에 따라 설립됨.

□ 한편 FSMA는 신규 은행법에 따라 2011년부터 은행세 징수,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기금 감독이외에 파산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과 그 이후의 은행권 재편도 담당하게 됨.

- FSMA는 파산 은행과 관련 자회사를 특정 은행이나 가교은행(bridge banks)에 이양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며 가교은행의 구조조정 과정도 감독하게 됨.
- FSMA가 관리하는 구조조정기금은 파산 은행 관련 금융기관을 보호하거나 가교은행의 자본금 또는 보증 재원에 지원되며 은행권 구조조정에도 활용될 예정임.

(Bloomberg 12/29)